

『창세기 28회: 창세기 25:27-26:12』

1. 장자권 거래(25:27-34)

27절-28절,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매우 다르게 묘사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각자 선호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 설명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사건의 배경으로 작동합니다.¹⁾ 이삭의 편애는 본능적인 감각에서 비롯했습니다.²⁾ 감각에 기반한 사랑은 자기 사랑의 연장일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더 잘하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가져온 결과물을 더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데, 택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로 사랑받음을 암시합니다.³⁾ 우리가 하나님께 이유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점을 늘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이유 없이 사랑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이어가야겠습니다.

29절, 야곱은 집에서 죽을 끓입니다. 죽은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대체하는 음식입니다(참고 왕하 4:38-40). ‘끓이다’라는 동사는 종종 ‘무례하게 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죽을 끓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무례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⁴⁾ 에서는 심히 배가 고파 있습니다(개역개정, ‘심히 피곤했다’). ‘끓주렸다’는 ‘아예프’라는 단어입니다. ‘아예프’는 갈증과 배고픔으로 약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어휘군은 여행자의 탈진 상태(신 25:18), 궁지에 몰린 군대(삿 8:4; 삼하 14:28, 31)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서는 감각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⁵⁾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과 정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피곤한 사람은 죄를 향한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화가 나거나, 자녀를 혼내고 싶거나,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싶거나 할 때

1)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500.

2)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661.

3) 정우준, 『창세기 I』(서울: 부크크, 2019), 296.

4)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664.

5) Kenneth Mathews, 『창세기 2』, 501.

에는 일단 자신이 피곤하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습니다. 잠을 자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30절-31절, 에서는 야곱에게 준비하는 붉은 것을 제발 삼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상당히 과장된 표현). 야곱은 에서에게 죽의 대가로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능력과 영향력을 상징했기 때문에 특별한 존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에서가 장자라는 이유로 얼마만큼의 유익을 누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은 에서가 지닌 맏아들의 위치를 빼앗고자 합니다.⁶⁾

32-34절, 에서는 야곱에게 “나는 죽기 직전이다!”라고 자신의 피곤을 과장하면서, 장자권의 명분이 지금 내게 무엇이 중요하겠느냐고 외칩니다.⁷⁾ 곰곰이 생각해보면, 에서는 지금 죽을 상황에 몰리지 않았습니다. 사냥하다가 돌아와서 허기진 상태일 뿐입니다. 에서가 조금만 허기를 견디면 얼마든지 다른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조금’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이처럼 에서는 영적인 것을 매우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비슷합니다. ‘조금’을 견디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조금’을 견디지 못하고, 경건의 습관을 포기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조금만 피곤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교회 섬기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타협합니다. ‘조금’을 견디지 않습니다. 대단한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면 이해라도 하지만, 실제로 대단한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조금의 귀찮음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파는 것을 맹세하라고 요구하고,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야곱 이야기는 에서를 향해 맹세를 요구하는 것(창 25:33)으로 시작해서 요셉을 향해 맹세를 요구하는 것(창 47:31)으로 끝납니다.⁸⁾ 야곱은 비열하게 장자권을 얻는 자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삶을 마칩니다. 에서와 야곱 둘 다 문제가 심각한 인물들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야곱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열망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기 어렵습

6)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윤상문, 황수철 역, 『창세기 16-50』(서울: 솔로몬, 2006), 339.

7) Kenneth Mathews, 『창세기 2』, 503.

8)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237.

니다.

야곱은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었고,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갑니다. 연속되는 동사들은 독자들에게 에서의 행동에 주목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은혜와 선물로 받았던 영적 지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는 행동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성경은 이 행동을 통해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했다고 평가합니다. 해설자가 인물을 평가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합니다.⁹⁾

키드너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의 자리를 빼앗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경시했다”라고 말한 점에 주목합니다. 에서는 짐승과 비슷합니다. 장자권을 떡과 팔죽과 바꾸는 모습,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는 행동은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기보다는 본능대로 행동하는 동물과 더욱 닮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희생하는 사람을 향해 “짐승과 인간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무시한 대가로 에서는 분노와 후회의 감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¹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상실할 때 어떠한 불공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¹¹⁾

2. 이삭에게 찾아온 기근

26장은 이삭이 기근을 이기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이야기와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로 속였던 이야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의 핍박 속에서 우물을 얻은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삭은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협상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양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브엘세바에 정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27장에서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것이 옳지 않음을 분명히 배웁니다. 또한 26장은 이삭의 부요함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언급하면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놓고 싸웠던 배경을 제공합니다. 야곱은 세상적인 부요함을 얻고자 장자권을 그토록 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¹²⁾

9)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339.

10)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666.

11)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Michigan: Zondervan, 1992), 김동진·정충하 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서울: 크리스찬서적, 2005), 167.

12)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354.

1절-6절,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이동하다가 그랄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강력하게 금지하셨지만, 이번에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금하실 때에는 상대적으로 금지의 정도가 강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는 간청, 호소, 권고하셨습니다.¹³⁾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삭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창세기 26장 3~5절)

5절은 아브라함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다고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만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단지 두 가지 언약만이 존재합니다.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입니다. 행위언약은 아담이 하늘에 이르는 길이고, 은혜언약은 타락한 인간이 하늘에 이르는 길입니다. 은혜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명령과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언약이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재적인 당사자이시고 언약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과의 언약에서 중보자, 보증인으로서, 언약의 수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삭 역시 복을 받는 것입니다.¹⁴⁾ 다만, 구약은 아직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에 아브라함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삭이 복을 받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이 약속은 기근 속에서 이삭이 들은 복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랄에 거주합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랄을 택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 로+미완료(아담의 경우), 알+지시형(이삭의 경우)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45.

14)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Kampen: 1895),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3』(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278-279.

“하나님은 내가 그랄에 머물면 복을 주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하지만 나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것 같아.”라고 말하며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삭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애굽으로 갑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흥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고, 12월에 따르면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¹⁵⁾

7-12절,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자 그랄 사람들은 이삭에게 리브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삭은 이런 질문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로 속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에게 리브가와와 혼인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¹⁶⁾ 아비멜렉은 매우 우연히 리브가와 이삭의 실제 관계를 목격합니다. 그는 왕실 창문 틈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목격합니다. 아비멜렉은 분노하여 이삭에게 “네가 어찌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라고 대답합니다. 아비멜렉은 진실을 알고 이삭 부부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랄에 남았다는 사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옳은 판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랄에 남으려고 했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리라고 생각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비멜렉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속인 이삭을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이삭을 지키는 법을 제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지키셨습니다.¹⁷⁾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록 연약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15) 정우준, 『창세기 I』, 315.

16)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679.

17) 정우준, 『창세기 I』, 318.